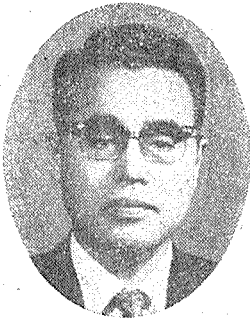


새 會長에 徐 丙高 박사

7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신임회장
서병설
박사

한국기생충박멸협회 76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1월 27일 등촌동에 있는 기협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대한의학협회 한겨부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이(李哲興)과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총무과장의 성원보고가 있은후 김연주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한 기협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여러가지로 협력력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한다. 앞으로도 더욱 국민보건에 이바지하자」는 요지의 개회사를 했다.

이어서 기협발전에 다대한 공로가 있는 이주수씨 등 11명에 감사장을 수여

했고 손차봉씨 등 6명에게는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별항 명단 참조).

이어 내빈축사로 들어가 한겨부 대한의학협회장은 「자중 기생충은 국민의 영양을 줄이고 국가경제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한때는 외국인들로부터 기생충왕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발족으로 감염율을 크게 저하시키는 등 다대한 공적을 이룩한데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요지의 내빈축사를 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에 들어가 김 주성 감사로부터 7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총무부장 사업부장으로 부터 76년 경리현황과 사업진행보고를 듣고 총무부장의 건회의록 낭독이 있었다.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전 김연주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날까지 별사고없이 무사히 임기만료를 한 것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히 생각한다」는 인사를 했다.

이어 임원개선으로 들어가 10분간 휴회를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회장선출에

속의를 거듭, 드디어 임시의장을 선출코 임원개선에 들어가 서병설(徐丙錫) 박사(서울의대 기생충학 주임교수·기협부회장)를 추대,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서병설 박사는 취임인사에서 「국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한 기협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중심으로 감사히 생각한다. 강족의 발족을 한 기협은 김연주 전회장의 공로가 크며 임직원 여러분의 분투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 앞으로 기생충사업에 미력이나마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요지(별항 2面)의 취임사를 했다.

다음으로 정관개정, 7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승인 등으로 폐회되었다.

77년도 총예산

6억 5천 4십 3만원 통과

7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77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억 5천 4십 3 만원을 통과시켰는데 일반회계사업으로 5억 8천 1백 19만 9천원, 특별회계사업으로 6천 9백 23만 3천원이 확정 통과되었다.

그런데 76년에 비해 일반회계는 4천 2백 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 4백 2십만 2천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통과된 예산은 학생점변구제 사업 일반주민주조구충사업, 산업장, 접

력업소 등의 구충사업, 기생충구제를 위한 홍보활동사업, 보수교육사업, 기생충구제 통계표작성 등에 주로 쓰여질 예정이다.

그런데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보사부의 승인을 얻는대로 77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기협고문 추대결의

이영춘, 이종진, 김연주박사 등

76년 대의원총회에서 기생충박멸사업과 기협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전임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하자는 긴급동의가 발의, 만장일치의 가결로서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전임회장인 이영춘, 이종진, 김연주 박사 등은 곧 실무진의 사무 절차가 끝나는대로 기협고문으로 추대케 된다.

서병설회장 취임식

기협 신임회장 서병설 박사의 회장 취임식이 12월 1일 본부 전직원 및 서울지부직원, 전국지부 검사소장 사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협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理事 監事陣 改選

총회에서는 새로히 이사 감사진을 개선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서병설

총 회 스 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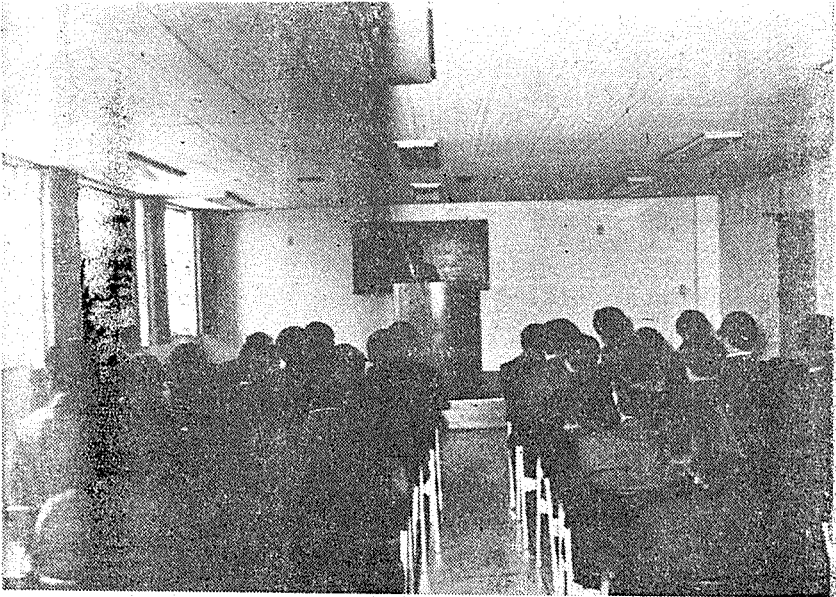


<사진 1>

부회장 소진탁
이 사 권이혁 김은우 유기수
 심운택 임한중(신임)
관 사 김주성 이주석

<사진 1>

12월 1일 거행된 신임회장 취임식에
서 기협본부 전직원 및 서울지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서병설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2>

<사진 2>
기협 전체직원이 서
병설 회장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사진 3>
76년도 제2차 정기이
사회에서 이사진들이 진
지하게 안건을 논의하
고 있다.



<사진 3>

76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11월 23일, 본회 회의실서

한국기생총박멸협회 76년도 제 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1월 23일 협회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76년도 사업 현황보고와 부의안건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이사회에서는 기협의 「정관 및 제규정과 신규제정의 건」을 심의 통과시켰는데 이날 논의된 중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사항

가. 총무부

- ① 경리현황보고(10월말 현재 본지부)

나. 사업부

- ① 일반및 학생검변진행 (10.31 현재)
- ② 76년 조사연구 실적보고 (10.31 ")

다. 기획부

- ① 76년 공보활동보고 (10.31일 현재)

1. 부의안건

가. 총무부

- ① 노후비둘찌기처분 승인

나. 사업부

- ① 7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사업 계획서(안) 확정
- ② 지부약품대금 일시차용 대여

다. 기획부

- ① 7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확정
- ② 76년도 일반회계 과목유용승인 (경남경기, 충청지부)
- ③ 76년도 특별회계예산 과목유용승인(부산지부)
- ④ 76년도 자조구충특별회계예산 과목유용승인(전북지부)
- ⑤ 정관및 제규정개정 및 신규제정
- 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감사장 수여자 명단(총회)

- ▲보건사회부 민성병과장 이주수
- ▲부산시교육위원회 장학관 김상재
- ▲경기도 " " 보건기사 유덕장
- ▲강원도 " " 장학관 지영식
- ▲충북도 보건과 보건기사 홍대식
- ▲충남도 교육위원회 보건기사 김선용
- ▲전북도보건사회국장 박관서
- ▲전북도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장 김형종
- ▲전남도 교육위원회 보건행정계장 성용규
- ▲경북도 보건과 보건과지도원 김보섭
- ▲경남도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장 최현집

표창장 수여자 명단(총회)

- ▲ 한국기생총박멸협회본부 총무과장 손차봉
- ▲ " 서울지부 사업과장 김일도
- ▲ " 강원지부 검사소장 안석록
- ▲ " 충북지부 기사 김영희
- ▲ " 전남지부 서무과장 이홍량
- ▲ " 전남지부 평화봉사단 임애실

태국기생충예방회직원 訪韓

태국(泰國) 기생충예방회직원 3명이 한국의 기생충사업 연구시찰차 지난 11월 25일 내한했다.

Dr. Sri Srinopakun, Mr. Praween Payapripapong, Dr. Boonyium Kietti

vuthi씨등 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26일 기협본부를 방문코 한국의 기생충현황을 돌아보았으며 서울대등을 시찰, 한국의 의뢰현황을 두루 살폈다.

화성가정보건사업소 개소식

—11월 30일, 발안1리에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공동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화성가정보건사업소 준공식결 개소식이 11월30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새마을회관에서 거행되었다.

가정보건사업소는 앞으로 향남면 일대의 기생충관리사업및 가족계획사업을 시범적으로 관리 시행하게 된다.

건강상식

눈(雪)과 건강 관계

눈도 인체에 영향을 준다.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상당히 저하하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류머티즘등이 악화되기도 한다.

눈이 쌓인 뒤에 날씨가 개이면 눈이 햇빛을 반사해서 자외선이 많

아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적당한 습기가 생기며 보통의 경우 기온도 오르기 때문에 건강에는 보탬이 된다.

그러나 눈이 쌓인 곳에서 반사하는 자외선으로 설맹(雪盲)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썬글라스등으로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사람의 精液은 맥주 35병

I회 사정으로 사출되는 정액의 분량은 대략 3cm³내외의 정도. 이 분량은 찻수갈로 하나 채 못되는 분량이다. 남성이 일생동안 치를수 있는 성교회수는 3천~4천회 정도 이므로 총 정액의 생산량은 1만 2천cm³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곧 맥주병으로 35병에 해당하는 분량이다.